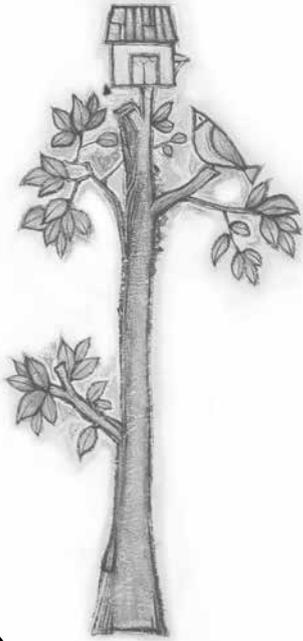


2017 여름 통권46호

가톨릭 사회복지

<http://caritas.cbck.or.kr>



목차

04 ● Caritas거울(鏡)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비전과 과제
(박문수 /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14 ● Caritas 지식인

HIV/AIDS 감염인의 영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리원 · 김건태)

30 ●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복지

열 가지 꿈으로 살아가는 ‘작은나무’ 이야기
(대담 정리 : 정진모 프란치스코 / 전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40 ● 특화된 교구 사회복지회(국) 소식:

“본당 사회복지를 통해 나와 너, 우리가 되는 인천교구 사회복지회”
- 버림받은 예수님을 찾아서...

46 ● Caritas 외침

사람과 자연,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세상... 어메니티 복지마을
(맹상학 마르첼리노 신부 /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총원장)
(신성수 베드로 신부 /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부원장)

57 ●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지상 중계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애인의 삶과 신앙”
(김재섭 비안네 신부 /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담당 사제)

63 ●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69 ● 영성자료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70 ● 주소록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비전과 과제

박문수 |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이웃 종교 관계자들과 만날 때 이따금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듣곤 한다. 천주교가 교세로는 개신교, 불교에 이어 3위지만, 교파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서 부동의 1위라는 사실 덕이다. 다들 알다시피 이 힘은 분열 없는 가톨릭의 ‘조직적 통일성’에서 온다. 게다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조사가 이뤄진 이래 천주교는 ‘사회적 위신’에서 계속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가톨릭 사회복지가 규모로는 종교 가운데 개신교 다음으로 크지만, 평판에 관한 한 최고 소리를 듣는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 평판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 하지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복지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교회와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판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 평판에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반영된 까닭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긍정적인 평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평판이 계속 이어질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1.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탐구의 배경

이천 년대 들어 가톨릭 사회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는 논의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큰 계기는 ‘대희년(2000년)’이었다. 세계 교회 전체가 대희년을 계기로

*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난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롭게 제3천년 기(期)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한국 교회도 이 움직임에 외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응답 노력 가운데 한 가지가 교구별로 진행한 ‘시노드(교구대의원회의)’였다. 모든 교구가 시노드를 개최하진 않았지만, 일부 교구들에서 진행하는 시노드 결과물들은 시행하지 않은 교구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가톨릭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시노드를 진행한 교구들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요한 의제 영역으로 다뤄졌고, 이제까지 기여해온 맥락의 연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자는 결의로 이어졌다.

각 교구에서 이뤄진 이러한 시도들의 영향일 수 있고 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이천 년대 들어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아마도 영향은 후자가 더 컸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영향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말 그대로 복지 환경의 변화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종교가 사회복지를 주도하였으나, 이 시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 때문에 종교는 주도적 역할에서 국가 사회복지의 보완적 역할로 영향력이 약화하였다.

둘째는, 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증가이다. 과거에는 개신교, 천주교가 주요 공급자였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이웃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의 진출과 확장이 두드러졌다. 이어 대학 사회복지학과, 시민단체, 퇴직 공무원, 개인 등도 공급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실상 공급자 간 경쟁의 시작이다. 이는 과거 종교계 사회복지의 특징이었던 희생정신과 헌신성에 더하여 전문성, 국가 기준에 상응하는 서비스 표준화까지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종교 사회복지 틀의 대폭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졌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주체의 다양화이다. 과거 가톨릭 사회복지의 주체는 신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종사자 절반 이상이 비신자다. 비신자 그룹에는 이웃 종교인, 무종교인이 섞여 있다. 이 현상의 직접 원인은 종교 사회복지가 국가 사회복지 체계에 편입된 탓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종교의 사랑 실천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의 영역이 된 탓이다. 이 때문에 신자들 대부분은 사랑 실천을 과거처럼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복지 공급자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 경쟁 격화, 국가 주도로 인한 종교계의 자율성 감소, 사랑 실천의 전문화와 직업화 등이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고민의 주요 계기였다.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주관적 의식이 결정한다. 자기의 의식이 분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동기와 목표가 확실해지면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가 정체성 의식과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 예로 나보다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측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비교는 주변이 변화함에 따라 나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정체성이 동적(動的) 측면을 갖는 까닭이다. 이 동적 측면은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른바 역할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체성은 비교 측면, 역할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가톨릭사회복지도 지금과 같은 정체성 고민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 탐구의 시작으로서의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필자도 학교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과목을 대학원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다. 첫 시간에 필자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에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명사라면 가톨릭은 주어가 되고, 가톨릭 사회복지는 가톨릭교회가 하는 사회복지가 된다. 가톨릭교회가 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비신자들의 인력과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의 힘만으로 ‘사랑 실천’ 의무의 연장에서 그 한 부분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지금은 가톨릭교회가 운영 주체인 해도 인력은 비신자들에게, 재정은 국가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다. 교회가 주체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약화된 셈이다.

그런데 ‘가톨릭’을 형용사로 보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 ‘가톨릭’은 ‘가톨릭적인’ 즉 ‘가톨릭다운’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형용사로 이해할 경우 ‘가톨릭 사회복지’는 가톨릭다운 사회복지로 해석해야 한다. 이때 가톨릭답다는 것이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다음과 같이 앞의 세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 우선, 주관적 정체성 측면이 명확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가 초기 교회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교로서의 정체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웃 종교나 비종교적 주체들과 비교해 무엇이 고유하고 뛰어난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야 한다. 셋째로, 역할 정체성 측면에서 우리는 환경이 변할 때마다 본래 정신을 잃지 않고 다른 주체들과 구별되는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답에 주변의 다른 경쟁자들이

동의할 때 ‘가톨릭다운 사회복지’로서 가톨릭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가톨릭’을 형용사로 보면 답이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나는 이 의미로 가톨릭사회복지를 정의하고 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2006년부터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였다. 관례에 비춰볼 때 교회는 전국 대회를 개최하기 두세 해 전부터 고민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대회를 개최하기 수년 전부터 실무자들이 이 대회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위원회가 일 년에 2회 발간하는 잡지 「가톨릭사회복지」에서는 대회 이전부터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대회는 나름 현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제1회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2006)’ 취지문에서 당시 추진 주체들이 하던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취지는 크게 세 가지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톨릭 영성 교육의 부족 : 일반의 통상적인 사회복지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외면적인 이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가톨릭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함께 접목하여 생각해 보는 노력이 부족하다.
- ② 계속된 후속 노력의 부재 : 단편적인 세부 현안에 대한 일회성의 교육 형태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과 방향, 내용 등을 찾으려는 이후의 후속 작업이 부족하다.
- ③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작은 교구의 현장 직원들은 시간·공간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 전국적인 가톨릭 사회복지 연대망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 세 동기에 기초하여 이 대회의 주체들은 “이에 교회의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교 원리를 밝히고 옹호하며, 이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모임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이 취지문은 표방하는 주제와 이를 설명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뜻이 명료하

지 않다. 해서 필자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해보려 한다. 사실 이것이 이 대회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에 명료화가 불가피하다. 필자가 이해한 내
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가 복지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가톨릭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② 이 대응 노력이 지속해서 전개되어야 했는데 그동안 이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보완할 안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 ③ 교육 여건이 미비한 교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전국
종사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회 개최 동기를 수정하면 이 대회는 다음 네 가지의 성격이 잘 드러나야 한
다. 첫째, 이 대회는 ‘가톨릭다운 사회복지’, 즉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
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주체가 실무자 개인이나 개별 교구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차원이어야 한다. 셋째, 이 대회는 가톨릭사회복지와 관련된 고민의 결과
를 교육 기회가 부족한 여러 교구 실무자들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원칙이 한 가지 더 있다. 이 대회에서는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
성 고민이 대회를 거듭할 때마다 심화하여야 하고, 그 대회 직전까지 이 고민의 내용을
모든 교구 실무자들과 충실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충실하면 이
대회 전까지 이전 대회 때 공유했던 내용을 각 교구 단위에서 충실히 실천하고 그 결과
를 본 대회에서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민한 결과
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대회의 궁극 취지는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 결
과를 모든 교구의 실무자들과 공유·심화·발전시키는 전국적인 장이 되는 것”이라 정리
할 수 있다.

3.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평가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2006년 처음 개최되었다. 2008년까지 매해 개최되다 4차

대회 때인 2010년부터 격년제로 변경되어 2016년까지 일곱 차례 열렸다. 나는 일곱 차례 열린 대회를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간략히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보려 한다.

3.1. 제1차대회(2006)

‘우리는 카리타스인’이 대회 주제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첫날 오후 당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흥식 주교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강연, 둘째 날, ‘우리는 카리타스인’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였다.

유 주교의 강연은 2005년 12월 25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반포하셨고 이 회칙의 우리말 번역본이 2006년 6월에 나왔기에 이 회칙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그리스도교 사회복지학’, ‘교회와 일반 사회복지의 관계’ 두 주제가 다루졌는데 대회 취지와 잘 어울렸다. 아쉬운 점이라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전원이 사전에 읽고 왔다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의를 처음 시도하였고, 그 구성적 요소들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제2차대회(2007)

2차 대회도 주제는 ‘우리는 카리타스인’이었다. 이 대회에서도 세미나가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세미나 주제는 당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연구 프로젝트인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시설 고유평가지표 개발”이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대회 출범 전부터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위원회의 공식 학술지 「가톨릭사회복지」를 통해 계속해왔다.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시설 고유평가지표 개발”도 이 관심과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연구 프로젝트였다.

이 평가지표 제목에서 ‘가톨릭’은 필자가 고민했던 내용과 같이 형용사로서 ‘가톨릭다운’을 의미하였다. 이 의미는 ‘고유평가지표’라는 단어에도 스며있다. 가톨릭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 정체성이라면 ‘고유평가지표’는 이 고유성이 드러나는, 즉 가톨릭 정체성이 분명한 ‘기관·시설 평가지표’라는 뜻이다. 다만 시작 단계였기에 이 평가지표의 개요를 소개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참가자들한테서 청취하는 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3.3. 제3차 대회(2008)

3차 대회 주제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워크숍이었다. ‘워크숍 1’에서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영성 등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 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가톨릭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숙고하였다. ‘워크숍 2’에서는 ‘홍보와 모금 전략’이라는 주제로 5개 교구(수원, 대전, 광주, 대구, 서울)가 주관하여 분과별로 진행하였다.

1, 2차 대회에서 ‘가톨릭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 중심의 논의를 진행하였다면, 3차 대회에서는 2차 대회의 연장에서 이 논의를 현장에 응용하려 시도하였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이었다. 그러나 1, 2차 대회 때 제시된 주제는 사실상 문제 제기 수준이었기에 3차 대회가 이를 심화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중심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련된 현장의 과제들이 다수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4. 제4차 대회(2010)

4차 대회 주제는 다시 1, 2차 대회의 주제인 ‘우리는 카리타스인’으로 돌아왔지만, 부제로 ‘친교와 나눔, 그리고 성장’이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친교 비중이 커졌다. 실제로 둘째 날 오후 전체와 저녁 시간이 친교에 배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3차 대회 때와 같이 워크숍이었다. 워크숍 포맷도 같았다. ‘워크숍’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가족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사회복지영성 강의 및 토론 등 다섯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내용은 3차 대회와 같이 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중심이었다. 3차와 같이 실천 현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다. 1~3차 대회가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친교와 나눔 시간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애초 취지보다 교류와 협력이 중심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3.5. 제5차 대회(2012)

5차 대회 주제는 ‘카리타스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었다. 부제로는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이었다. 당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가 ‘새로운 복음화’인데서 비롯한 것일 터이다.

프로그램은 강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 강의는 ‘새로운 복음화와 사회복지의 관계’(강영옥 박사)였고, 둘째 강의는 ‘카리타스의 과거 현재 미래’(도건창 소장)였다. 나머지 시간은 4차 대회와 같은 포맷으로 짜였다.

큰 맥락에서 주제와 내용은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렸지만, 새로운 복음화는 일반 참가자들에게 다소 어려운 주제여서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 논의와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때문에 1~3차까지 이어지던 논의들이 4차 대회부터 다소 분산되고 일관성을 덜 띠는 것처럼 보였다. 5차 대회 때 다뤘던 강의 내용도 큰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었지만, 앞에서 해왔던 고민을 계속한 것 같지는 않았다.

3.6. 제6차대회(2014)

6차 대회 주제는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였다. 부제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경춘 주교의 ‘카리타스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였다. 세미나에서는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월평빌라’ 이야기가 ‘지역과 함께 하는 소통’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소개되었다.

나머지 시간은 4~5차 대회와 같이 강의와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친교와 나눔에 초점을 맞추었다. 5차 대회부터 참가자가 450명으로 이전 대회보다 100명 이상 늘었다. 아마도 프로그램이 친교에 초점을 맞추고, 대회 참가자도 이 성격 변화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참여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인 듯하다. 주제 측면에서 보면 큰 맥락에서는 대회 취지와 연결되었지만, 고민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심화·발전이라는 면은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3.7. 제7차대회(2016)

7차 대회 주제는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 2’였다. 부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연 ‘소셜 미디어에 글쓰기’와 워크숍 ‘사회 참여 경험 나누기’였다. 나머지 시간은 4차 대회 이후 각 대회에서 취해온 친교와 나눔이 중심이었다.

주제 측면은 6차 대회의 연장에서 대회의 근본 취지와 맥락에서 잘 어울리긴 하였지만, 고민의 축적과 심화라는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상에서 애초 취지는 1~3차 대회까지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4차 대회부터는 주제가 현장 요구에 맞는 쪽으로 변모하면서 다소 거리가 생겼다. 5차 대회부터는 참석자 규모가 늘었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도 애초 취지보다 친교와 나눔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변하였다. 그 결과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심화·발전시키려는 애초의 의도는 다소 약화하였다.

4.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방향 제언

첫째, 이 대회가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려면 규모가 그리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대회 참가자들이 매년 바뀌고 있다. 비신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아마도 대회 간에 연속성이 적어 이런 이들이 처음 참여해도 부담이 크지 않고, 말 그대로 대회 성격에 어울리게 최대 다수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다 보니 그리된 것일 터이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직전 대회의 고민과 성과가 다음 대회로 이어지고, 이 결과가 현장에서 실천한 결과가 다시 차기 대회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는 대회 간에 주제와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참가자가 달라져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 대회가 종사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라면 아예 그 목적에 충실하든가,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해서 참여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도록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침 올해부터 제8차 대회를 준비하게 될 터이니 이 측면을 정체성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해보시기 바란다.

둘째, 이 대회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방금 앞에서 제안한 방식과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는 「가톨릭사회복지」 학술지 편집자문소위원회, 교구 사회복지회(국) 실무자 전체 모임이 있고 주교회의 사무처 주최로 사회복지·사회사목 국장회의가 있다. 이 가운데 학술지 편집자문소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가톨릭사회복지」를 통해 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에도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행사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체성 고민에 관한 한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조직이 정작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점이 대회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회의 성격,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조직의 정체성 명료화를 통해 본래 취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대회 기획위원회를 교구 실무자 전체 모임 산하에 상설 조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기획 위원들의 임기를 길게 하여 대회의 연속성을 갖게 한다. 이들이 편집자문을 하는 전문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서 이어간다면 대회에도 연속성이 생길 것이다.

셋째, 제1차 대회 때 제안된 일이지만 지금쯤 제2차 대회 때 제시되었던 '고유 평가지

표'에 기초하여 '가톨릭사회복지 윤리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8차 대회 때 발의하고 2년 여의 준비를 거쳐 9차 대회 때 제정하면 가톨릭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 2차 대회 때 제안되었던 고민이 이후 심화하지 않은 것이 제법 있다. 애초 행사 제안서에 들어 있던 여러 과제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들이다. 이처럼 본래 취지에 맞는 과제들을 대회를 통해 다뤄야 그 의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가톨릭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내용과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주제와 내용이 상호 연동되는 방식을 고려해볼 직하다. 두 번째의 안정화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처럼 학술지와 현장이 연결되면 정체성 고민이 더욱 심화 발전할 것이다. 다들 봉사인 데 무리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이왕 봉사할 바에야 더 큰 의미를 찾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감히 제안을 한다. ❀



HIV/AIDS 감염인의 영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리원²⁾ · 김건태³⁾

I. 서론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인체 내에 들어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공격하여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에 감염되어 세포 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기회감염이 있게 되는 것을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AIDS가 1985년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인은 2014년 기준 내국인 9,615명으로 남자가 92.4%, 여자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성 접촉으로 감염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6).

과거 HIV 감염자들은 남성끼리 성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매매춘 산업에 종사하거나, 주사로 마약을 투여하다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도덕적 낙인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다. 현재도 감염인들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며 생활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지고 대인관계에서의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단절을 경험한다.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 증상들 즉, 신경과민, 초조, 긴장, 두려움, 공포와 함께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다(권석만 등, 2001).

신체적·경제적 능력의 상실,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은 감염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승배는 감염 전에 비해 감염 후 직업이 하향 이동되어 경제적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혔고, 권석만은 감염 기간이 짧고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상의할 지지체계가 부족하다고 하였다(신승배, 2011; 권석만 등, 2001). 한편 임세아는 경제 수

1)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난

2) 주저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3)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exodusss@naver.com)

준이 높아야 좋은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연령이 낮고 경제 수준이 높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밝혔다(임세아, 2013). 또 HIV 감염 기간이 짧을수록 심리적인 부적응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그 후 무증상기에는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지만, AIDS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기에 접어들면 또 다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나타난다고 한다(권석만 등, 2001).

이처럼 감염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소득, 감염 기간, 직업 유무,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HIV/AIDS 감염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에 위협을 받게 되고, 희망·죽음·애도·의미·상실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려는 방법으로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신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면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학자 중 Pargament 등(1998)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원인을 다루는데 종교가 더 이용 가능할 때 영적인 대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또 Sodestrom과 Martinson의 연구(1987)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의 88%가 암에 대처하려는 방법으로 다양한 영적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종교적 믿음과 활동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 영성은 고통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삶에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요소로 협력한다.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강점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살펴보아도 ‘영성’은 모든 강점의 근원으로 정서적 위안, 영감, 생의 구조화, 지침, 안정감을 주고 이와 같은 결과가 책임감, 정체감, 도덕적 민감성, 의미 있는 신앙생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otterer, 2001).

이렇듯 영성과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는 감염인의 정신건강상태 또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 등만 있었고(권석만 등, 2001; 임세아, 2013), 최근 들어서야 감염인의 영성을 다른 요인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강선경, 2015). 영성은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과 함께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고 있고 성장을 위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에(오정영, 2009), 본 연구에서는 감염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영성을 단일 변수로 측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영성과 삶의 질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에 참여한 260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인구 사회학적 분석 및 OLS 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영성 하위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서 영성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성

기존의 선행연구자들이 영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만, 영성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의 명료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Lazar, 2014). 선행 연구는 각각의 관점에서 영성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다음은 그중의 몇 가지 견해이다.

Webb에 의하면, 영성이란 제도 종교에 상관없이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성은 자연 혹은 우주와 연결된 상태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으로, 종교보다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다. 종교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초월적 존재와 개인의 연관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영성과 종교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Webb, 2003). Zilar는 형식적인 면에서 영성과 종교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종교와 달리 영성은 구체적 신앙의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 영성은 신앙의 체계보다 타인 혹은 우주 혹은 더 높은 힘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영성은 각 개인이 어떤 장애가 닥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인도한다(Zilar, 2002).

위에서 언급한 영성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요소는 초월적 존재와 자신을 연결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의 연결 혹은 인격적인 만남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개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종교와 영성은 유사 개념으로 보고 연구할 수 있는가? 일부 연구에서는 종교와 영성을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 Koenig(2004; 2012)는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했는데, 환자들의 90%가 자신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라고 대답했다(Koenig, 2004; Koenig, 2012). 본 연구에서도 영성을 종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불교 영성, 가톨릭 영성과 같이 제도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도 종교 밖에서 초월적 존재와 관계를 갖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영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영성은 종교와 유사하지만, 종교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영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영성의 개념화를 위해 특정 종교의 구성원인지 아닌지나 종교집회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와 같은 간단한 개념을 사용하여 영성과 종교적 성향을 측정하였다(NerfNeff, 2008). 이에 비해 1999년 미국 노인국에서 연구한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BOORSBMMRS)는 영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총 27문항, 6개의 하위 범주를 이용했는데, 각각의 범주는 일상에서의 영적 경험, 가치/신념, 용서, 개인적인 종교 생활, 영적 대처기술, 종교적 후원이다. 일상에서의 영적 경험은 나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느끼는지, 가치/신념은 나를 보살피는 신의 존재를 믿는지,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는지, 자신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용서하는지, 신이 나를 용서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인적인 종교 생활은 얼마나 자주 명상을 하는지와 신앙 서적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영적 대처기술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종교적 후원은 공동체 신자들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영성의 개념화를 위해 위의 BOORSBMMRS의 6개 범주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성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Hafizi 등은 종교가 경계성 인격 장애 특히, 분노, 공허함, 자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Hafizi, Tabatabae & Koenig 2014). 영성은 스트레스와 자살과 관련된 연구에서 최근 긍정심리학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살의 보호 요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우울증이 HIV 감염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영성이 매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White, 2016; 최순옥과 김숙남, 2011).

미국에서 2000년 이전에 시행된 110개의 연구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시행된 344개 연구에서 영성은 만성질환, 신장, 당뇨, 심장, 암, HIV, 임종 시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질병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약물 남용, 자살, 불안과도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Koenig, 2012).

또한 영성은 HIV/AIDS와 같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의 위협과 같은 고통 받는 상황에 이용할 수 있다. 영성은 부정적인 사건을 다르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큰 통제감을 제공하고, 적응을 도와준다. 또한 영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대처 방식은 더 큰 주관적 삶의 질,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다(Pargament, Smith, Koenig & Perez, 1998).

또 Pargament 등(1998)은 협력적 대처 방법과 긍정적 재평가 과정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줄어들고 유능감과 영적 성장은 높아진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협력적 대처 방식은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 수준과 같은 긍정적 결과와 연관이 있었다(Wong-McDonald and Gorsuch, 2000). 이 같은 협력적 대처 방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교적/영적 대처방식 중 하나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영적 갈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라는 질문을 빈번히 하거나, 치유를 위한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별을 주는 것인가?” 혹은 “신이 나를 돌보는가?” “신은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런 영적 갈등을 지속해서 겪을 경우 생존 기간이 더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enig, 2004). Puchalski도 그의 연구에서 만약 환자가 위기를 신의 별로 여기거나, 또는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더욱 우울함을 느끼고 삶의 질이 나빠진다고 분석하였다(Puchalski, 2010).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 영성이란 제도적 종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초월적 존재와의 연결 혹은 인격적 만남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영성은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 정의하였다(문형란, 2016).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지표나 수치화하여 측정 가능한 객관적 차원과 개인적 선호와 개인 내면의 심리 요인을 반영하는 주관적 차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개인을 둘러싼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와 같은 요인까지 포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최유경, 2016). 객관적 차원에서는 신체적 건강을 측정하고, 정신적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 행복도, 우울증, 자존감을 통해서 측정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최화강, 2012).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두 개념 간에 차이가 있다.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다면적 개념인 데 반하여,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측면만을 반영한 개념으로 주관적인 개인의 안녕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Smedema, Catalano & Ebener, 2010).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삶의 질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의 선고로 여겨졌던 HIV/AIDS 감염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발전으로 통제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HIV/AIDS 감염자의 삶을 연장하는 데 치중했던 노력이 일종의 만성질환을 앓은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AIDS 관리에 있어서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이인정과 이영선, 2013). 이는 암이나 기타 만성 질병

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HIV 감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됐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으로 성별, 인종, 연령, 직업의 유무나 소득 정도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우울한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기도 했으며, 낙인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가 있다. 낙인은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사회적 지지가 그 정도를 완화한다는 연구가 있다(강선경, 2015; 이인정, 이영선, 2013).

월 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 삶의 질과 정적 관계에 있으며, 높은 소득수준은 감염인의 삶의 질 전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고, 소득수준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 (Wig, Lekshmi, Pal, Ahuja, Mittal & Agarwal, 2006; 신승배, 2011). 변영순·이경혜(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인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이 거부하거나 가족에 대한 염려와 죄책감으로 스스로 집을 나오게 되면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의 심각도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Ragsdale과 Morrow의 연구(1990)에 의하면 HIV감염인들은 대개 질병이 진행될수록 신체적 조건의 악화와 함께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이 AIDS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다(Ragsdale and Morrow, 1990). Cleary 등의 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범주 안에 질병의 심각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Lyketsos 등도 HIV 감염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HIV 감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Cleary, Fowler, & Weissman, 1993; Lyketsos, Hoover, Guccione, Dew, Wesch, Bing & Treiman, 1996).

최근에는 종교 및 영성과 HIV/AIDS 감염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성 혹은 영성은 대부분 사람의 삶의 질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영성이 삶의 만족을 높이고 부정적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종교를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이 현재의 삶과 맞물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깊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강선경, 2015).

Siegel 등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종교와 영성이 감염자에게 힘과 역량을 강화해주고, HIV로 인한 정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고, 신과 관계

를 강화하며, 질병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며, 자신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키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와 불확실성을 완화한다고 보았다(Siegel and Schrimshaw, 2002).

요약하면 영성이 HIV/AIDS 감염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대상자는 ‘가톨릭 레드리본 센터’를 이용하는 HIV/AIDS 감염인과 HIV/AIDS 감염인 쉼터에 거주하며 설문 가능한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로 감염자와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의 감염내과 담당자와 HIV/AIDS 감염인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의 담당자를 통하여 표집 대상자를 확보하였으며, 감염인을 통해 소개받은 감염인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25부가 배포되었으며 그중 290부가 회수되었고, 분석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극대화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집단의 모든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고 모집단의 목록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비확률 표집방법 중 이용 가능 표본추출(available subject)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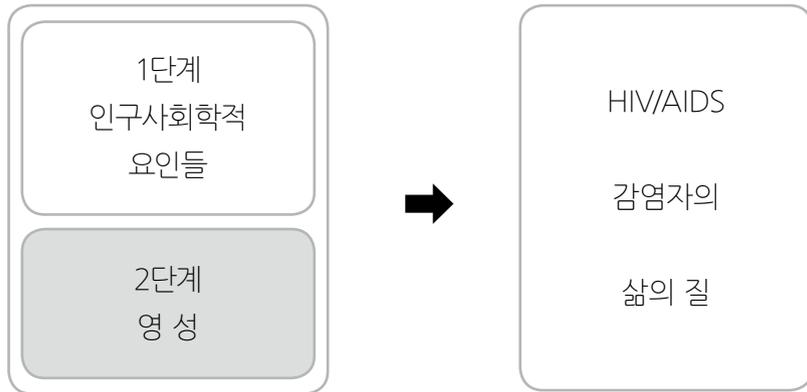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HIV/AIDS 감염인들의 영성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1. 일상에서 영적 경험들이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2. 가치와 믿음이 확고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3. 용서의 체험이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4. 개인적인 종교 생활 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5. 종교적/영적 대처기술이 확고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 1-6. 종교적 후원이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3. 연구모형



<그림1> 연구모형

4. 측정도구

1) 영성

영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1999년 미국 노인국에서 연구한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BMMRS)의 한국판을 이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척도로 일상에서의 영적 경험 6문항, 가치 2문항, 용서 3문항, 개인적인 종교 생활 5문항, 영성 대처기술 7문항, 종교적 후원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보면 .974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일상에서의 영적 경험 .959, 가치 .838, 용서 .922, 개인적인 종교생활 .946, 영성 대처기술 .871, 종교적 후원 .865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Holmes와 Shea(1998)에 의해 개발된 삶의 질 척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Holmes & Shea, 1998). 삶의 질은 9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는데, 기능적 범주(전반적인 기능/성적 기능) 10문항, 심리적 안정(노출에 대한 걱정/건강과 관련된 근심/재정과 관련된 근심) 14문항, HIV/AIDS 감염인들이 받는 직접적인 영향(HIV/AIDS 수용, 삶의 만족도) 11문항, 의료와 관련된 범주(의료에 대한 관심/의료 제공자에 대한 신뢰)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04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이어 HIV/AIDS 감염인들의 영성 하위범주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본론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6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76.2%, 여성이 23.8%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45~59세가 43.5%로 가장 많고 35~44세가 30.8% 순이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8.1%로 가장 많고, 이별이 20.8%, 기혼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0.8%,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9.2%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64.6%로 가장 많고, 사무직이 11.2%, 자영업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고퇴)이 48.8%로 가장 많다. 월평균 수입은 50만 원 이하가 55.0%로 가장 많고, 51~100만 원이 24.2% 순이다.

<표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98	76.2
	여성	62	23.8
연령	20~34세	33	12.7
	35~44세	80	30.8
	45~59세	113	43.5
	60세 이상	34	13.1
결혼상태	미혼	177	68.1
	기혼	14	5.4
	별거	10	3.8

	이별	54	20.8
	사별	5	1.9
종교	없다	128	49.2
	있다	132	50.8
직업	무직	168	64.6
	자영업	23	8.8
	사무직	29	11.2
	서비스업(위생업소)	9	3.5
	기능직 근로자	12	4.6
	학생	1	0.4
	기타	18	6.9
학력	초졸 혹은 이하	6	2.3
	중졸(중퇴)	31	11.9
	고졸(고퇴)	127	48.8
	대졸(대퇴)이상	90	34.6
월평균수입	50만 원 이하	143	55.0
	51-100만 원	63	24.2
	101-150만 원	41	15.8
	151-200만 원	5	1.9
	201-250만 원	8	3.1

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N=260)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임상적 상태는 치료제 복용 중이나 특별한 증상 없음이 46.9%로 가장 많았고, 기회감염에 의한 치료 중이 20.8%,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상태가 12.7%, AIDS가 10.4%, 약물 부작용에 의한 치료 중이 9.8% 순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경로는 동성 간의 성 접촉이 60.0%로 가장 많았고, 이성 간의 성 접촉이 22.3%, 모르겠다가 16.5%, 수혈을 통해서가 0.8%, HIV에 의해 오염된 주사침에 찔려서가 0.4%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 인식 기간은 5~9년이 39.2%로 가장 많았고, 10~14년이 29.6%, 15~19년이 19.6%, 5년 이하가 6.5%, 20년 이상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의 책임은 내 책임이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운이 나빠서가 32.7%,

나를 감염시킨 사람의 책임이다가 14.2%,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이다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⁴⁾

〈표2〉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임상적 상태	기회감염에 의한 치료 중	54	20.8
	약물 부작용에 의한 치료 중	24	9.8
	치료제 복용중이나 특별한 증상 없음	122	46.9
	정신과적 증상(우울, 조울)이 있음	33	12.7
	AIDS	27	10.4
HIV 감염	이성 간의 성 접촉	58	22.3
	동성 간의 성 접촉	156	60.0
경로	수혈을 통해	2	0.8
	HIV에 의해 오염된 주사침에 찔려	1	0.4
	모름	43	16.5
감염 인식 기간	5년 이하	17	6.5
	5년-9년	102	39.2
	10년-14년	77	29.6
	15년-19년	51	19.6
	20년 이상	13	5.0
감염의 책임	운이 나빠서	85	32.7
	내 책임이다	110	42.3
	나를 감염시킨 사람의 책임이다	37	14.2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이다	26	10.0
	기타	2	0.8

4) ①기회감염: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②무증상기: HIV에 최초로 감염된 후 초기증상을 거친 다음 오랫동안(평균10년) 동안의 무증상기에 들어가며 그 후 면역저하가 심해져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로 인해 합병증(기회감염) 등이 생기고 비로소 AIDS라 부르게 된다, ③AIDS: HIV 감염인 중 CD4 림프구 수가 200/mms 미만으로 감소하여 있거나 기회감염 등 AIDS 관련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3. 평균비교

〈표3〉은 영성, 영성의 하위변수, 삶의 질의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 기술통계를 구해 정리한 것이다. 〈표3〉에 의하면 영성 총점의 평균은 2.27로 나왔으며, 삶의 질 총점은 2.75로 나왔다. 영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종교적 후원이 2.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적/영적 대처기술이 2.43, 가치/믿음이 2.20, 일상생활 속 영적 경험이 2.14, 용서가 1.99의 순으로 나왔다.

〈표3〉 평균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영성	일상생활 속 영적경험	2.14	1.10
	가치/믿음	2.20	0.83
	용서	1.99	0.85
	개인적인 종교생활	2.12	1.11
	종교적/영적 대처기술	2.43	0.41
	종교적 후원	2.64	0.33
	총점	2.27	0.66
삶의 질	총점	2.75	0.45

4. OLS 회귀분석 결과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 기반을 두어 OLS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Step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통제변수들 가운데 연령, 종교 유무와 월 소득, 임상적 상태 중 기회감염 치료 중과 AIDS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Step2는 Step1에 영성 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Step2의 여섯 변수 중 용서와 종교적/영적 대처기술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으며, Step1보다 9%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단일 변수의 투입으로 높은 설명력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며 영성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Step2를 중심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 중에는 월 소득과 기회감염 치료 중, AIDS가 감염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기회감염 치료 중과 AIDS는 증상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질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염인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HIV에 감염된 후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지거나 기회감염 또는 합병증이 생긴 환자일수록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성의 하위변수 중 삶의 질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용서와 종교적/영적 대처기술이 나타났다. 용서는 삶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종교적인 혹은 영적인 믿음이 신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 준 사람들과 본인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한 체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종교적/영적 대처기술도 삶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위기 시에 긍정적 대처방법, 협력적 대처 방법, 합리적 결정 능력을 사용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으로 Step2 는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 32% 안팎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 중 1-3과 1-5가 지지가 되었다.

〈표4〉 회귀분석 결과

변인	삶의 질 Step1		삶의 질 Step2	
	β	유의수준	β	유의수준
성별	-1.643	.544	-2.163	.417
연령	.234*	.039	.206	.059
종교유무	-10.193***	.000	-4.287	.127
학력	1.612	.125	1.369	.177
월소득	3.759**	.001	3.573**	.001
기회감염 치료 중	-9.763**	.001	-9.127**	.002
약물부작용 치료 중	.009	.998	.886	.810
우울상태	-3.055	.391	-1.277	.715
AIDS	-12.939**	.001	-13.072***	.000
생활 속 영적경험			-.619	.107
가치/믿음			-.369	.766
용서			3.040**	.001
개인적인 종교생활			-.468	.203
종교적/영적대처기술			1.488**	.009
종교적 후원			.252	.762
	R제곱 .229		R제곱 .317	
	수정된 R제곱 .198		수정된 R제곱 .270	

(N=260)

*P<.05 **P<.01 ***P<.001표4〉 회귀분석 결과

IV. 결론

본 연구는 HIV/AIDS 감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HIV/AIDS 감염자 2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통제변수들 가운데 월 소득이 감염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 삶의 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질병을 얻게 된 후 직장 또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사회 생활 참여는 물론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약 복용에 관계되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월 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관계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질병의 심각도도 감염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감염 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기회감염에 노출된 경우와 AIDS의 단계로 넘어간 경우 삶의 질과 부적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감염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영성이 차지하는 설명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의 세부요인 중에서 용서와 종교적/영적 대처기술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HIV/AIDS는 아직도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감염인들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편견, 차별, 낙인으로 이중의 고통을 경험한다. 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회 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감염인들은 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 상황 안에서 특정 감염인들은 질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종교 관점에 따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도, 명상 등을 통한 실제적 훈련으로 용서하는 자비로운 신을 체험한 사람들은 불안,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하고, 상처를 준 타인을 용서하게 만든다. 오복자 등은 이러한 조화로운 상호연결성(harmonious interconnectedness)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자연 및 상위존재와 자유로운 관계를 추구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오복자와 강경아, 2000). 본 연구에서도 감염인들이 용서

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되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과 세상, 신과 다시금 하나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 및 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감염인들의 삶의 질은 평균 정도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영성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 용서 체험과 종교적/영적 대처기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차원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성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상담가들은 그들의 환자에게 믿음이나 신념체계를 부과하는 것이 수동성, 의존성 부인을 촉진한다고 믿기도 하여 상담 시에 종교와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터부시됐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회피하고 싶은 사건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물질적 지지, 종교의 형식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종교 체험을 깊게 하여 통합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은 상담가들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일 것이다. 종교기관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영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의 종교적, 영적 상태 및 진보 정도를 알아야 하고 인간발달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의 감각적·이성적·영적 차원의 발달과정을 반영한 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으로 감염인과 같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영성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영적 발달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개인에 따라서도 발달 과정이 다르므로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성향, 세계관, 영적 대처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에게 처벌받았다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왜곡된 인지를 재구조화시키는 방법이,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클라이언트에게는 멀어져 있던 것들과 화해·용서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별·집단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사회복지 실천영역이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지를 구성할 때 영성 척도 사용에 있어 기존에 만들어진 해외 척도를 이용하여, 영성의 속성이 인종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영성과 삶의 질은 주관적이면서도 질적 차원에 있는 관계로 횡단 분석의 단편적인 검토만으로는 인과성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영성의 발달적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후 이 같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영성 척도의 개발과 영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파편화되고 소외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강선경 / 2015, “사회적 낙인, 영성, 자아존중감이 HIV/AIDS 감염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38(3), 106.
- 권석만·김선영·이주실·고운영 / 2001, “한국 남성 HIV 감염자의 정신건강상태 및 관련된 요인”,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1), 219-228.
- 문형란 / 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변영순·이경혜 / 2006, “AIDS 환자의 삶의 경험”, 질적연구, 7(2), 1-11.
- 신승배 / 2011,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1(4), 424-453.
- 오복자·장경아 / 2000, “영성(spirituality)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5-1155.
- 오정영 / 2009, “사회복지실천과 영성, 복지상담학연구”, 4(1), 55-66.
- 이인정·이영선 / 2013, “HIV/AIDS 감염인의 지각된 낙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351.
- 임세아 / 2013, “HIV 감염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8(2), 363-381.
- 최순옥·김숙남 /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1.
- 최유경 /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화강 / 2012,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열 가지 꿈으로 살아가는 '작은나루' 이야기

-김종호 바오로



대담 정리 : 정진모 프란치스코 / 전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내가 김종호 바오로 형제를 알게 된 것은 10년 전이다. 공동모금회(중앙)에서 배분 위원으로 활동할 때 지원 사업 중간평가를 위해 '베타니아'를 방문했었다. 그때 두 가지 감동을 받았다. 하나는 장애아 어린이집 교실에 교구들이 시중에서 산 것이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이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먹을거리였다. 일반 슈퍼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은 반입(搬入) 금지라는 것이다. 일반 음료수, 아이스크림, 우유 등등...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철학이 삶 속에 스며있었다.

바오로 형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의 지체장애인(2급)이다. 그는 장애아동 복지를 위해 30여 년을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대부'라는 별칭으로 더 친숙한 바오로 형제를 만나기 위해 여수 '베타니아 공동체'를 방문하였다.

바오로 형제는 사업가로 살면서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10여 년간 봉사하다가 20여 년 전에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¹⁾를 설립하였고,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창립을

1)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전남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특수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주간보호시설 작은나루, 아동발달지원 센터, 한국숲학교연구소의 부설기관과 사회적기업 에코베타니아(주) 운영을 통한 생태 사회복지와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비영리 법인.

주도하여 장애아동 보육과 재활 지원을 위한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다.

바로 형제(작은나루²⁾)는 오래전에 ‘열 가지 꿈(버킷리스트)’을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오고 있다. 한정된 지면에 모두 담기는 부족하지만 남다른 삶을 살게 된 동기와 배경, 그의 신앙과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 바로 형제의 열 가지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

1. ‘작은나루’의 첫 번째 꿈이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의사가 되어 이 세상에 질병과 장애인 없애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열세 살) 때부터 꾸어 오던 꿈이었죠. 만 두 살에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인으로 살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유일한 태양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 이 세상에 질병과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의사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이 1968년 서울 Y의대에 합격하고서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물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7년의 방황과 절망, 여섯 번의 자살 시도,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의사가 아닌 ‘영혼의 의사’³⁾가 되는 꿈으로 다시 불타올라 스물다섯에 장애 청소년 단체(베테스다신생활)를 세우고 ‘애양기술학원’을 설립, 지원하였습니다. 5년 뒤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면서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는 꿈은 실현할 수 없었기에 그 꿈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여러 명의 의사를 고용하여 더 많은 질병을 없애고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여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점차 물질과 돈, 욕망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매를 드신 하느님은 타락한 저를 오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자 일생의 최고봉인 서른일곱(결혼 후 7년)에 가진 것(전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시고 감옥에서도 살아보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교통사고로 죽음(보름 동안 가사 상태에 있었다.)을 통해서 생명까지 담보하시며 철저히 다시 태어남(Born again)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면이 캄캄한 암흑일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뚫려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나는 누구인가?’ 제 존재 이유와 최초의 꿈이 소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 다시 발견한 제 꿈은 잿더미 같은 삶 속에서도 불씨로 살아있어서 재를 거두어내자 최초의 꿈은 활활 타올랐으며, 제 주인님은 성령쇄신운동과 사회사업을 통하여 영혼의 의사

2) 작은나루: 김종호의 아호로 육지와 배를 연결해 주는 나루(터)처럼 세상과 소외된 약자를 이어주는 작은 나루(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 한중오(아호 ‘나루’) 회장의 삶을 본받고자 ‘작은나루’로 지음 받음.

3) 영혼의 의사: 정신적(영적)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사람.

가 되도록 30여 년째 가르쳐주고 계신답니다.

전국 2만여 장애 아동을 위해, 여수시 2만여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장애인 없애기’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만, 이제 남은 제 인생(일흔 살 이후)은 영혼의 의사로 살아가라고 제 꿈을 실천하기를 재촉하십니다.

2. 육신의 의사가 아닌 영적인 의사로 운명이 바뀐 ‘작은나루’의 두 번째 꿈이 궁금하군요?

“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최고의 기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물아홉부터 꾸어오던 이 두 번째 꿈은 마흔아홉(1997년)에 1차 이루어졌고, 2차 꿈은 진행 중이지요.

제가 1977년 개교(改敎)⁴⁾하여 결혼하던 해부터 꾸었던 이 꿈은 마흔아홉이 되면 재물도 모으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우고 여유도 있을 때,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기적인 꿈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해가 정확하게 제 나이 마흔아홉이었다는 것을 베타니아 연혁을 정리하다 발견하고,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주셨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름이 돋았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한 꿈입니다.

이후 김정태 님(전 국민은행장)의 통 큰 기부와 후원자님들 그리고 제 아파트를 팔아서 300여 평의 나눔관을 자부담으로 신축하면서 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5개의 부설기관에 80여 명의 직원들이 250여 명(매일)의 고객(장애아동, 일반아동, 장애청소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과 정부(지자체)와 은인, 동반자들의 도움이 있어 꿈을 이룬 기적들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생태적 복지재단⁵⁾, 최고의 기관이 되는 꿈을 더 꾸고 있습니다. 세계에 베타니아 아동복지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베타니아 가족들과 함께 꾸고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3. ‘작은나루’의 세 번째 희망찬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베타니아 생태마을(영성센터 및 생태농장) 건립하기’입니다. 마흔하나(1989년)에 난생처음 외국(미국) 여행에서 필라델피아 근교 ‘찬미의 백성들’ 공동체를 돌아보고 귀국하여

4) 개교(改敎): 만 2세에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 되면서 어머니의 신앙으로 개신교 신자로 26년을 살았고, 모니카를 만나 스물아홉에 결혼하면서 천주교로 개교하였음.

5) 생태적 복지재단: 설립 정신에서부터 생명운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사업 실천 20년 동안 얻은 결론은 생태와 생명, 다름과 같음, 참 나눔과 참 섬김은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21세기 모든 이가 실천해야 할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배경임.



‘한국 찬미의 백성들’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 첫 사업을 ‘예리고의 집’⁶⁾으로 시작(1991년)하였고, 대자모임을 ‘찬미의 백성들’로 이름 지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 후 환경 회복, 저탄소 운동, 자원 재활용(Recycling), 유기농 먹을거리, 슬로우푸드(Slow Food) 등 생태와 생명 회복을 ‘베타니아공동체’의 핵심가치로 실천하면서 ‘베타니아 생태마을’

만들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베타니아 생태마을’ 만들기의 구체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베타니아 정신에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미래 공동체 마을은 장애인·일반인·모든 이가 함께하는 생태 영성센터, 친환경 농장(유기농, 특용작물 재배, 도농간 직거래), 생태교육관(생태체험학습장, 숲 유치원), 공동체 회원 주택 등이 함께 어우러진 꿈의 동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베타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통합(Inclusion)의 두레입니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동반자들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꿈이 같은 1004천사들이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4. ‘베타니아 생태마을’, 꿈 같은 그림입니다. 그럼 네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이타적인 인생 살기, 원수라도 용서하기’ 네 번째 꿈은 꿈을 꾸면서부터 바로 이루어진 기막힌 은총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깨어있지 않을 때는 늘 실패하는 꿈이지요.

이 꿈의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1984년(서른여섯)에 전 재산(당시 시가 5억 이상)을 하루아침에 후~ 불어버리신 하느님께서서 1985년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에 교통사고로 장이 파열되었으나 병원의 오진으로 3일 후에야 발견하게 하셨고, 장을 2m 이상 잘라내는 8시간의 수술이었으나 너무나 뒤늦은 수술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던 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다만 24시간 쉬지 않고 바치는 고리기도와 매일미사를 봉헌하는 아내(모니카)와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외면하는 듯, 수술 15일째가 되는 날은 향문이 열

6) 예리고의집: 1991년에 박종학 님과 함께 시작한 무의탁 노인 생활시설로 여수시 충무동 달동네에서 어르신 12명을 모시고 전담 봉사자와 함께 살. 1997년에 현 부지를 구매, 이전하여 광주대학교구에 기증하였고, 현재까지 인보성체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리고, 일부 피부마저 부패하고 있어 병원 부원장이 퇴근하기 전에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며 임종 준비를 당부하여 아내는 마지막 임종기도를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고 현대 의학과 과학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날 밤에 가까운 신자들이 모여 마지막 임종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을 두리번거리며 서울에서 임종을 지키려고 와 있던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너 언제 왔냐?”며 얘기를 하였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 있던 보호자들과 제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야단법석, 한동안 장터를 방불케 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여섯 개의 호스를 모두 제거하고 입원실로 올라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저는 “37년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37년 동안만 더 살게 해 달라.”는 간청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해 달라는 꿈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주님은 즉시 제 청원(꿈)을 들어주셨고,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타적인 삶과 실천이 먼저인 제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며, 아무리 저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 내 삶을 노크했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 번째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찰해야 가능한 일이고, 날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천국(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5. 놀라운 하느님 체험이군요. 신앙의 확신이 부럽습니다. 다섯 번째 꿈은 무엇인지요?

‘참 섬김⁷⁾으로 만인을 사랑하기’입니다. 이 꿈은 평생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제 나이 서른일곱(1985년)에 하느님께서 제 몸과 정신, 영혼까지 쇠신(renovation)시키셔서 당신의 도구로 창조 이전부터 선택하셨고, 저에게 참 섬김으로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했으면 새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저에게 천주교 광주 대교구 여순지역(여수, 여천, 순천, 승주, 광양, 동광양, 보성, 벌교, 구례, 고흥, 녹동) 성령 쇠신봉사회를 창립하여 평신도 책임자가 되게 하시고, 이일을 지도신부님과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후 15여 년 동안 성령쇠신운동 봉사자로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고 평신도

7) 참 섬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범, 당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성체성사)으로 가장 낮은 자로 사는 것, 힘든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만인을 섬기는 것(보편적인 사랑)으로 생각함.

선교사가 되게 하시어 전국 14개 교구와 해외 4개국의 100여 개 성당에서 300여 회의 강의와 기도회, 세미나에 참여, 지도하게 하셨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매일 베타니아 교직원 아침 기도모임에 성경을 통한 말씀 선포자로 살게 하시어 참 섬김으로 만인을 사랑하는 영성가가 되는 꿈을 계속 꾸라고 하십니다.



저는 몇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 년에 몇 번은 저도 남처럼 쉽게 사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묶이면 예수님이 멀어지고,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만인에게 나누어야 할 시간이 줄어들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참 섬김을 시능만 내고 있으나, 보편적인 사랑을 무늬만 하고 있으나,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평생 생각과 말과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이를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6. 제가 꿈도 꾸지 못 하는 일들을 하셨네요. 여섯 번째 꿈은요?

‘참 나눔으로 참된 뜻 있는 일에 물처럼 돈 쓰기’입니다.

저와 제 아내의 생각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닿는 데 까지 참된 의미 있는 일에, 참된 소중한 일에는 물처럼 돈을 쓰며 더 나누는 것이 꿈입니다. 참 나눔은 자신이 먹고 입고 쓰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재물, 시간, 건강, 지식을 따로 떼어 나누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이기에 참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동의라도 하시듯,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필요한 돈은 언제나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하고픈 사업, 필요한 사업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굳게 믿어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베타니아라고 생각해요.

제 모습을 지켜본 자식들과 저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 지혜롭게 번 돈을 자신이 꿈꾸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물처럼 쓰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어 봅니다.

7. 일곱 번째 꿈은!

‘차별이 아닌 차이의 세상, 다름과 같음의 사회 만들기’ 입니다.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이 없어지는 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아니고 같음이며, 같음이 아니고 다름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하나(통합)인 사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며, 제가 꾸는 꿈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빛으로도 어둠을 밝힐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르심(Calling)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겪어도 부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기 때문입니다.

8. 여덟 번째 꿈은!

‘기차로 세계여행 다니기, 여수에서 런던까지!’ 입니다.

1999년에 노동 시인 박노해 님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꿈으로서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입니다.

당시에는 10년 이내(2010년경)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꿈이 가까이 오는 듯하다가 지금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꾸어야 할 꿈입니다.

장애인이지만 역마살(?)이 끼어 여행을 좋아하는데, 마누라까지 닳은꼴이라 해마다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늙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발해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꿈이지요. 그날이 오면 맨 첫 그룹에 한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9. 아홉 번째 꿈은 제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꿈,

‘세상 여정 마친 날 백합꽃 한 송이 받아보기’ 입니다.

저는 2000년에 ‘여수경제실천연합’ 사회복지위원장으로 3년 동안 ‘장기기증 운동’을 주도하면서 제 사후 조직기능과 시신 전체를 (사)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했습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고 제 몸이 죽어서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다 쓰고 남은 시신은 1~2년 후에 화장하여 유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보다 죽은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저에게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하는 진짜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신동(2000년)일 때, 어떤 피정 연수에서 어설픈 유언장을 처음 쓴 게 계기가 되어 그 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유언장을 갱신하여 다시 작성하고 있어 벌써 여덟 번을 고쳐 썼습니다. 제가 죽거든 직계가족들은 즉시 연락을 해서 조금이라도 덜 부패할 때 제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어주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6개월 후 지인에게 서면으로 알림) 제 빈 관(영전) 앞에 가족들이 백합꽃 한 송이를 올려 달라는 제 유언이 아홉 번째 꿈입니다.

10. ‘작은나무’의 열 번째 꿈, 마지막 꿈이 궁금합니다.



이 꿈은 2015년에 새로 만든 꿈으로서 ‘한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숲 교육의 모토 잇돌 되기’입니다.

저와 ‘베타니아 공동체’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된 2004년 6월 12일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애 아이들의 특수보육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저에

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욕설투성이 명강의를 듣고 자신의 무지에 눈을 뜨게 된 이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베타니아 재탄생의 원년이 된 2005학년도부터 생태유아교육으로 전환하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 통합보육기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2011년 3월에 개원하게 된 장애아 통합 숲유치원이 이 꿈을 갖게 한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2011년 (사)한국숲유치원협회와의 숙명적 만남을 통해서 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 5년간을 협회의 사업과 업무에 무보수로 봉사하면서(여수에서 서울을 오가며) 제 인생에 마지막 꽃을 피우기 위해 한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숲 교육의 모토잇돌’이 되자는 열 번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협회 회장에 출마한 사건이지요.

저는 아이들의 놀이를 찾아주고, 아이다움을 찾아주고, 아이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교육! 현대 유아교육의 유일한 희망이 유아 숲 교육이고 천·지·인(天地人)이 하나라는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숲에 나가면 교실이 되고 숲이 교사가 되지요. 숲은 생명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고 보물창고이고 종합예술이며 백과사전이지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유아 숲 교육의 기초를 놓는 모퉁잇돌이 되는 꿈은 우리 모두 다 함께 꾸어야 할 참다운 꿈입니다.



김종호 바오로 형제에게서 장애인이라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진정한 장애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불편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영혼)의 장애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하였다.

제 삶에 크게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셨고 제 삶 깊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뒤늦게 깨닫곤 했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에제 36, 26ㄱ, 28ㄴ).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지요.

저는 장애인이기에 행복합니다. 장애가 아닌 곳이 훨씬 더 많아 행복합니다. 서른일곱에 죽었던 인생이 덤으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꿈을 지지해 주고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준 아내 모니카에게 온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호 회장님의 꿈에 빠져 네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차를 다섯 잔이나 마셨다. 그는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간다. 직선보다 굽은 길이 많은 것을 품고 나눌 것이 많다고 했듯이, 바오로 형제의 꿈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감동이다. 그가 꾸는 많은 꿈 중에 무엇보다 ‘베타니아 생태마을’에 관심이 많이 간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꿈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소서... ✿



“본당 사회복지를 통해 나와 너, 우리가 되는 인천교구 사회복지회”

- 버림받은 예수님을 찾아서...



〈사례〉

여름 어느 날의 일기

○○동 성당 봉사자

오늘 오후에는 독거노인 한 분을 만나야 한다. 출발하기 전에 구청에서 보내준 신상 카드를 보고 전화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복지사한테 2주일 전에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오늘은 무작정 찾아가 보기로 했다. 주소지로 가보니, 할아버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섯 개의 방 가운데 하나에 살고 계셨다. 방 번호를 확인하고 내려다보니 문쪽에 검정 비닐봉지가 걸려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봉지 안에는 날벌레가 들끓었고, 그 사이로 썩어가는 두부 한모가 보였다.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이 문은 한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신상 카드에는 가족이 없었다. 불길한 마음에 밖으로 나섰다.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멀리 있어서 방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경찰관과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싱크대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공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방바닥을 덮고 있는 오줌과 똥은, 어떤 것은 바싹 마르고, 다른 것은 덜 마르고, 또 다른 것은 축축한 채로, 각각 배설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 위로 이 상황

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자세하게 남아 있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약한 숨을 쉬고 있었기에, 나는 황급히 욕실로 옮기기 위해서 경찰관과 열쇠수리공의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열쇠공은 수고비를 챙기자 급히 나가버렸고, 경찰관 역시 그 뒤를 급하게 따라 나갔다.

나는 다시 119에 도움을 청했다. 구급대원들이 오는 사이에 수건에 물을 적셔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냈다. 구급대원이 오면 같이 씻길 작정으로 욕실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아놓았다. 하지만 구급대원도 씻기는 일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할아버지를 욕실까지만 옮겨주고 악취에 코를 막고 달아나듯 가버렸다.

좁은 욕실에서 마비가 된 노인의 옷을 벗겨서 씻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이런 일은 봉사자도 힘들지만, 당사자도 힘이 든다. 목욕을 끝낸 후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다. 거친 숨이 가라앉자 할아버지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꺼져가는 쉼 목소리로 가냘프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다음 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지만, 그 음성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편히 잠드세요!”

* 인천교구 본당 사회복지분과의 구조

인천교구는 11개의 지구(김포·강화, 계양, 남구, 남동, 부천 1, 부천 2, 부평, 서구, 시흥·안산, 연수, 중동구)로 나뉘어 122개 본당을 관할한다. 지구마다 6~14개의 본당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90여 개의 본당에 사회복지분과와 빈첸시오회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지구모임을 한다. 각 본당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지구모임을 통해 각 본당 사회복지분과, 빈첸시오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돕고 있다.

〈표〉인천교구 본당사회복지분과 현황

	계양	김포 강화	남구	남동	부천1	부천2	부평	서구	시흥 안산	연수	중동구
본당수	7	9	9	14	10	9	11	10	6	6	6
모임 날짜	1주 화요일	1주 수요일	2주 금요일	1주 목요일	3주 수요일	4주 수요일	2주 목요일	2주 화요일	2주 수요일	3주 월요일	4주 목요일



서구지구 모임



부평지구 모임

* 본당 사회복지분과, 빈첸시오회가 하는 활동

본당 사회복지분과, 빈첸시오회가 주로 하는 활동은 각 본당 관할 지역 내에 어려운 이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현물, 재화, 밑반찬, 정서 등...)을 채워준다. 지역마다 차이가 나서 어떤 본당에서는 밑반찬 봉사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본당에서는 이·미용 봉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다. 본당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지구모임을 통해 각 본당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구 안에서 다른 본당이 서로 도와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도 한다.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아간다.



주거환경 개선



밑반찬 봉사



* 교구 사회복지회와 함께 하는 특화사업

- 특화 사업 1 '바다의별장학회'

2011년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존에 하던 장학지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50명을 선발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구 주보이신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의 이름을 따서 '바다의별장학회'를 시작하였는데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로 각 본당에서 관할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서 교구 사회복지회로 추천서를 보내면 교구에서 50명을 선발하여 1년 동안 학비를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각 본당에서는 '바다의별장학회'에 후원도 하고, 선정된 학생에 대해 교육비 이외에 필요한 여타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고, 가정의 필요한 부분을 돕다 보니, 비신자 가정에서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신앙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위해 1년에 한 번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인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눌 기회도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바다의별장학생' 봉사 캠프



봉사 사진 ▶

- 특화 사업 2 '시설, 본당 네트워크 회의-김장 전달'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지구모임에 1년에 2차례 정도(4월, 11월)는 각 지구에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들이 함께 참석해서 시설·본당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한다.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과의 만남은 본당 사회복지분과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얻을 기회가 된다.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연결된 시설과 본당은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특별히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의 연중 큰 고민인 김장은 각 지구 내에서 본당들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봉사, 후원 또한 지속해서 이루어진다.



김장 봉사



김포·강화 지구 네트워크 회의

- 특화 사업 3 '긴급 생계·의료비 지급'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는데, 이 또한 본당 사회복지분과, 빈첸시오회를 통해 대상자가 연결된다. 본당에서는 주변에 어려운 이들 중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한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교구 사회복지회로 지원 신청을 한다. 처음에는 비전문가이다 보니 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이 주저하였는데, 지금은 여느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전문가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이를 통해 긴급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되면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긴급 생계·의료비 전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과 함께 지원 대상자 만남

*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날마다 뛰어다니다 보니, 영적으로 소진되고 지치기도 하는데, 교구 사회복지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연수를 통해 힐링하고 서로 친교를 이루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1차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의 영성적 측면에서 필요한 인문학이나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직접 체험한 부분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2차는 순수하게 친교와 자연 안에서의 힐링을 주목적으로 하여 기차 성지 순례나 야외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신앙 안에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연 2회 지구별 회식을 통해 평가와 나눔의 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본당 1차 연수



본당 2차 연수(체육대회)



본당 2차 연수(성지순례)

버림받은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나에게만 향하던 신앙에서 너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인천교구 본당 사회복지의 꽃’이다. ❀



사람과 자연,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세상... 어메니티 복지마을

맹상학 마르첼리노 신부(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총원장)
신성수 베드로 신부(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부원장)

하늘에는 햇살이 한가득,
땅에는 청량한 바람이 한가득,
살아가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한가득한
여기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입니다.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이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자구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요양 시설을 설립·운영이 가능한 제도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노인들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은 6만여 명의 지역 인구 중 30%가 노인 인구로 서천군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연동되어 2005년 5월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탄생한 노인복지 타운입니다. 2007년 8월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시작으로 노인 복지 시설을 늘려가면서 2008년 복지마을을 완공하여 같은 해 8월 30일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관 봉헌 미사에서 교구장 유홍식(라자로) 주교님은 "복지마을 수탁이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는 대전교구에 성모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하시면서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요람"이 될 것을 강조하셨

습니다. 이후 복지마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투신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해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어촌복합 복지단지의 모델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메니티(amenity)’의 사전적 의미는 ‘기분에 맞음’, ‘쾌적함’, ‘즐거움’, ‘예의’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환경에서 어메니티는 ‘쾌적한 환경’, ‘매력적인 환경’ 또는 ‘보통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상태·행위’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단어가 내포한 고귀한 의미를 생태적 자연환경과 휴먼 서비스를 통해 복지 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복지 마을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관·요양시설·요양병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107여 세대의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 공동 농장, 찜질방, 야외 공연장,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생태 하천 등의 주민 거주 시설과 문화 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복지마을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복지마을은 단순히 나이 들고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오는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복지를 창조하고 누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하고자 모이는 ‘복(福)된 공간’입니다.

● 오늘도 “이곳이 천국이여~~” 서천군 노인복지관

2012년 대전교구 사목교서에서 교구장님은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그 어느 단체보다 연령 통합적인 공동체입니다. 그중에서 노년기는 삶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인생의 정리 단계이자,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교회와 사회에 공헌하면서 모든 세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교회는 노년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인들이 신앙의 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통합하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사목이 나아갈 길입니다.”라고 하시며, 교회가 노인복지를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노년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르신들의 통합적 삶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하여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사업, 즐거운 노후와 웃음을 위한 취미·여가 지원 사업, 따뜻하고 든든한 마음을 나누는 정서 생활 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생활 지원 사업, 지역주민과 나누며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사업,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재가 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지킴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위한 고용 지원 사업(노인 일자리), 지역과 하나 되어 활기찬 노후

를 여는 지역 복지 연계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 남성 요리 교실(쿡),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노인 통합 지도사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는 노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13개 읍면 거점 활동가들을 양성하였고, 대전교구의 ‘한끼100원나눔 운동본부’지원으로 찾아가는 ‘행복밥차’를 운영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행사와 행복한 분위기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 즐거운 웃음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식당 사장님들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독거 어르신 생신 잔치는 많은 지역민의 정성이 모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처음 써보네~~” 생전 처음 고깔모자를 쓰시며 웃음 지으시는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 선물을 지원하는 지역 기업, 예쁜 떡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는 사장님, 어르신들을 일일이 살피고 모시는 생활관리 선생님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하고 이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빛나는 역할이 복지관을 더욱 힘차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삶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모아 봉사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어르신들 삶의 역사와 자리를 소중하게 들고 여쭙어 복지관을 통해 충분히 사랑을 받으시도록 돕고, 받으신 사랑으로 행복감이 넘쳐 이웃과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봉사단의 역할입니다. 현재 5개 봉사단이 복지관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삶의 의미를 노래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이 천국이여~~” 복지관을 나서시는 어르신들... 삶을 만나는 자리마다 즐거운 웃음과 행복한 노후가 되시도록 마음을 담아 배웁니다.

● 하느님 사랑이 스며있는 아름다운 세상, 서천군노인요양시설

2008년 개설된 서천군노인요양시설은 ‘사랑·섬김·나눔·존중’을 핵심 가치로 여기며 100여 명의 입소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마을의 노인 의료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시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가톨릭 사회복지만이 할 수 있는 고유성의 하나가 미사를 통한 영적 돌봄입니다. 표현하진 않으시지만,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입니다. 부원장 신부님의 매일 미사와 영적 상담, 간호 수녀님의 전문 간호 서비스와 영적 돌봄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립니다. 많은 입소 어르신들이 미사 시간을 제일 많이 기다리고 참여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소하신 분들에게 차별화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입니다. 모든 직원이 60~70시간이 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입소 어르신과 가족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거나 시설의 소식을 메일로 발송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과 입소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추어 태블릿 PC를 구매, 자주 방문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가족과 영상 통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생활에 익숙하신 어르신들이 시설 생활로 인해 겪게 되는 분리불안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지역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지역민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 개관 8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과 재능으로 꾸준히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씩 주방의 채소 손질을 도맡아 해 주시는 서천성당 레지오 단원들, 목욕 봉사단, 이·미용 봉사단,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공연, 치과 진료, 빨래와 바느질 봉사단, 입소 어르신 생신 잔치를 위해 빵과 케이크를 매월 기부해 주시는 제과점 사장님, 내 부모를 생각하듯 다른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간식을 기부해 주시는 가족들까지, 다양한 지역 자원이 자랑스러운 서천군요양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천군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7월부터 전문 인력과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추어 ‘치매 전담실’을 개소하여 치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전담실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동안 아이들만의 교구라 여겼던 몬테소리 교구 활용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과 감각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치매 전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의 예민한 피부와 와상 어르신들을 위해 타 시설과 달리 대규모의 세탁실을 완비해 천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건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따뜻한 봄날 서천군요양시설을 찾아오시면 뒷마당 한가득 하얗게 널린 기저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어 변화에 민감한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70여 명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든든한 후원자들의 지원 덕분에 지난 한 해, 서천군요양시설에 큰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2016년 4월 실시한 제6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에서 ‘201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6월에는 노인 학대 예방 정착 및 장기요양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어르신들의 소외감과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기요양 유공자 감사패’를 받았으며, 7월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멘토 기관’으로 지정되어 충남 도내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천군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와 생활하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안에서 ‘하느님 사랑이 스며있는 공동체’를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 진정한 ‘효(孝)’를 실천합니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서천군립요양병원은 5개 진료과(피부과,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외과, 한방과)와 3개 병동(희망병동, 사랑병동, 성 라파엘 케어센터(Saint Raphael Care Center)) 28병실 182병상, 24시간 간병 시스템, 약국,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경당, 상담실, 하느님 자비의 방(임종실), 가족면회실, 게스트 룸(guest room), 야외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로 마지막 임종까지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환자분들에게 의료 부분(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부터 영적인 보살핌(영적 상담, 병자성사, 봉성체, 매일 기도, 빈소 방문, 위령 미사 등), 행정 및 심리적 케어(가족 교육, 행정 고충 처리, 사후 상담, 1주기 연락, 사별 가족 프로그램, 음악 치료, 책 읽어주기, 기념일 이벤트, 손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등)같은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 문화 여가 활동(공예, 원예 치료, 도예, 미술, 생신잔치, 특별 공연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교육(목욕, 장수 사진 촬영, 손발 마사지, 와플 나눔, 어버이날 행사, 이·미용, 식사 수발, 한글 교육, 말벗 등) 서비스로 환우들의 단조로운 병원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수행(찾아가는 의료 상담, 방문 간호, 외래 및 입원 의료비 후원, 노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시설들과 연계한 의료 지원 등)을 각계 분야의 기관 및 시설들과 협력을 체결하고 운영함으로써 서천 지역 내 공공 의료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병실과 직원, 병실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 간 ‘병실 결연’을 맺어 아침저녁 문안인사, 말벗, 공예, 손발 마사지, 안마, 책 읽어 드리기, 식사 수발, 공연, 심부름 등 자녀와 손자녀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부모를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양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지역 이웃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효(孝)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평소 손자녀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축복식을 마친 ‘성 라파엘 케어센터(Saint Raphael Care Center)’는 기존 ‘집중 치료실’ 이름을 바꾸면서 전문의·간호사·사제·수녀·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가 한 팀을 이루어 입원 환자의 치료 및 재활과 함께 영적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전인적



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 라파엘 케어센터’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모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방’이 있습니다. 임종을 맞는 환자와 보호자가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도록 배려한 공간으로, 죽

음을 좀 더 평온하게 맞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부모님을 뵈러 오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병원 3층의 게스트 룸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도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은 ‘Caritas’이념을 바탕으로 ‘행복·친절·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아 총원장을 비롯하여 170여 명의 직원과 환자, 보호자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기 위해 많은 고민과 변화를 시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행복한 꿈, 우리가 함께합니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불편한 가운데서도 꿈을 놓지 않는 이들...

표현하기 어렵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

능숙하지 않지만 스스로 해내려는 이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으로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불편한 이웃의 디딤돌이 되는 곳입니다. 하루 400여 명의 이용자가 오고 가는 우리 복지관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여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천군은 농촌, 어촌, 산촌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2읍 11개 면으로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곳에서 이분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농사일이나 그물 손질, 김일 등을 도우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가족들이 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걱정되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집과 마을회관만 오가면서 생활하시다가 처음 복지관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오시면, 종천수원지에 아름다운 복지관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 마을은 복지관, 병원, 요양 시설, 아파트, 보호 작업장이 모두 한자리에 자리하고 있어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매일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소해 주고 계셔서 아주 깔끔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분들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복지관 이용 순서와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 좋다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선 밥이나 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은 이분들의 몫이기에 저희는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기다리며 함께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무언가를 쉽 없이 하기보다, 가능한 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지난날들이, 내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익숙할 수 있는 이들에게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꿈은 직장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내 밥벌이라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꿈은 같아도, 가진 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불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활동에 제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만을 바라보기보다,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한 분, 한 분씩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저하고 멈춰 있는 이웃의 삶이 다시 일어나도록 디딤돌이 되는 것. 이만큼 아름다운 수고가 있을까요?

복지관이 농촌에 있다는 장점을 한껏 살려 뒷마당 땅을 골라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콜라비, 마늘, 양파 등을 심고 가꿉니다. 다들 한 번씩 집 앞마당에서 상추나 파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므로 즐겁게 함께합니다. 지역의 별빛마을 농장 선생님이 오셔서 키우는 방법, 물주는 방법, 풀매는 방법 등을 알려주십니다. 더운 날, 함께 물을 주고 직접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참여자들이 뿌듯해합니다. 지난 가을 복지관 바자회에서는 텃밭에서 수확한 열무와 배추를 내놓았습니다. 무공해 첫 농사... 무공해 채소라 크기도 고르지 않고 몇 단밖에 안 되었지만 한목소리로 외치니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수익금은 참여자들 즐거운 주전부리로 썼습니다. 텃밭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니 행복도 늘어갑니다.

그 이후, 복지관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밥도 드시고 친구도 사귀시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집과 마을회관 또는 병원만 전전하며 하루를 무료하게 살았던 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햇살을 머금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꽃처럼, 가을이 되면 결국 열매를 맺고야 마는 나무들처럼 오늘도 복지관은 아주 느린 속도로 삶을 가꾸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지역장애인들의 행복한 꿈, 그 곁에 늘 복지관이 함께하겠습니다.

●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서천군보호작업장

처음 보호작업장에 오던 날,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지 이름을 물어도 수줍어하던 진희(가명) 씨...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지만, 상급학교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농어산촌 발달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서천군보호작업장이 생기기 전까지 진희 씨도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집에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010년 보호작업장이 문을 열면서 본인과 가족의 바람으로 일의 욕구를 가진 지역의 장애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진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직업재활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직무 훈련 지원으로 지혜 씨는 이제 보호작업장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잔업이나 특근 시에는 가장 먼저 뽑히는 근로인이 되었고 급여도 항상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게다가 조금 직무가 떨어지는 동료 근로인들을 끌고 가고 새로운 친구나 실습생들이 오면 이것저것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장은 농어촌 지역으로 바다가 가깝고 농지가 풍부합니다. 일찍부터 지역산업



으로 발달한 김 산업과 특산품인 모시, 풍부한 농지에 착안하여 장애인들이 수행 가능한 아이템으로 조미김과 모시떡, 화훼를 고민하고 개발하여 직무 훈련과 생산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조미김은 2010년 개소하면서 지자체와 법인의 지원으로 설비 투자를 마치고 직무

훈련과 생산을 시작한 지 7년의 세월이 지나 대전교구에서는 제법 알려졌고, 30여 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연간 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201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모시떡 생산 설비를, 2013년 SK이노베이션과 일신화학의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화훼 및 채소류 재배를 위한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다른 30여 명의 근로 장애인들은 직무 수행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 자립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큼니다. 다양한 직무 개발과 훈련으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보호작업장의 가장 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고 느리지만, 또 다른 지혜 씨의 행복한 일터를 꿈꾸며 ‘행복·평등·동행’이라는 핵심 가치의 깃발을 들고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서천군보호작업장 화이팅!!

‘복지 세상을 위하여!’

5.9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복지 공약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정부도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을 확대하여 올해에 맞춤형 복지팀을 624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사회는 공허한 말 잔치나 제도, 재정 투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복지의 질적인 향상은 정부정책과 제도와 함께, 시민의식 함양, 초심을 잃지 않는 현장의 지속적인 실천과 의지 등이 함께할 때만이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개관 열 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복지마을은 가톨릭사회복지가 지역사회와의 다른 복지 서비스 자원 체계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걸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진정한 복지 세상을 이루기 위해 마을의 외적인 측면에서 성장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카리타스 정신의 내면화, 초심을 잃지 않는 성찰, 지역사회와 이용자, 종사자가 느끼는 질적인 내면의 세계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애인의 삶과 신앙”

김재섭 비안네 신부 /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담당 사제

1. 장애란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지상의 삶을 사시면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불구로 간혹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장애인이 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활동에 다소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으로서 품위나 존엄성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명쯤 되는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느끼는 것은 실상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처지, 다시 말씀드리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고, 특히 사회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보고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전국의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심과 영성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피경에서 한 강의를 게재하는 난이다. 이 글은 지난 2017년 4월 26일 ~ 28일,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던 김재섭 신부의 피경 강의 내용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 그 자체가 그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원래 팔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되는 것은 단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자신에 대한 인식 때문이며, 또한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때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장애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의 냉대 때문입니다. 특히 후천적인 경우에 다소 불편함을 겪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을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겪는 어려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사회에서는 그들을 냉대하거나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는 규정된 장애인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취업률을 보입니다. 만일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라면 별문제겠지만, 사회에서 이들을 받아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뿐 아니라 지체 부자유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를 해주도록 사도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오늘의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신체적 결손을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치유 행위를 해왔고, 또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잃지 않고, 또 잃지 않게 하면, 신체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지라도 이미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적은 치유 행위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으며, 언제나 가능하고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장애인 학교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지만 순탄히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도 많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간혹 부모들조차 그들을 돌보기를 꺼려 버려지기도 합니다. 한편 산업이 발달하고 특히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도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천적 장애의 요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 그들을 위한 행사나 모임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외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나와 다름없는 똑같은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눈길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일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신체나 정신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장애로 규정하지만 실상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마음 안에 믿음이나 사랑이 결핍되었다면, 또 깊은 상처로 인해 마음에 병이 들었다면 그 역시 장애인 것이고 이를 ‘마음의 장애’ 또는 ‘심리적 장애’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믿음의 장애인, 사랑의 장애인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는 신체적인 것이기에 육신만을 불편하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더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체적인 장애인들만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죄를 지어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셨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유언에서 “내가 죄 중에 있었기에 나병환자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에게 데려가셨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때는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내게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역겨움은 나의 시각과 후각에 따라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역겨움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환자가 나환자를 역겨워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변하고 식성이 변하는 것처럼 감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감정의 변화는 신앙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모발현지인 루르드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체적인 치유보다 심리적인 치유, 회개의 기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 감정의 변화로 회개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지요.

감정의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과 후각으로 인해 생기는 역겨움을 어떻게 단맛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감정 변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다른 모든 사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향수를 많이 쓰는데, 그 향수가 그 사람의 냄새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향수를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하나는 자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흉한 모습을 너울로 가리듯 자신의 악취를 향수로써 없애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물을 똑바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빛이시며 사람의 악취를 향기로움으로 바꿔주는 향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프란치스코처럼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온몸을 불사르듯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친구처럼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내세적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환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일생 기쁨 속에서 나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2. 봉사자로서의 자세

〈편견을 고침〉

장애인에 대한 편견: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을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2-3).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봉사〉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루가 22,25-26).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백성을 지배하는 데 잘못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바라셨던, 오늘날 교회 봉사자들에게도 바라시는 지침일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겸손한 자세로 참다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라기보다는 섬기는 자세 - 발씻김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봉사〉

간혹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자아실현 또는 이상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는 경우들입니다. 또는 자기만족이나 성취감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참다운 봉사라고 할 수 없으며, 때때로 클라이언트나 다른 봉사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봉사자들이 클라이언트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발길을 끊는다거나, 봉사자들 사이의 파벌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사목의 필요성〉

한국교회에서 장애인들의 입지는 일반사회에서나 개신교에서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입지는 복지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목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신자들에 대한 영적인 배려와 사목적인 배려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부모는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할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장애인 사목의 목적은 장애인 신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의 대상자들이고,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협조자들입니다. 즉 우리도 구원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는 일인지를 오늘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사람들은 어두울 때, 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몰래 나쁜 짓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대낮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깨어 준비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2016년 12월~2017년 5월

사회복지위원회

■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제45호 발행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교회 복지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술지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제45

호를 2017년 1월 6일(금)에 발행하였다.

‘Caritas 거울’에는 지난 가톨릭 사회복지대회를 되돌아보는 평가 내용을 실었다. ‘Caritas 지식인’에는 “가톨릭교회 수도자들의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고 관리자 리더십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요약하여 실었고, ‘Caritas Vision 흐름과 전망’에는 카리타스학 실천 방법(‘누가 저의 이웃입니까?’)을 소개하였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 복지’에는 나래울 이종길 관장의 사랑 나눔 활동을 인터뷰 방문 기사로 연재하였다. ‘교구 사회복지회(국) 특화 소식’은 제주교구 사회복지국의 제주스마트복지관(가상복지관)의 활동을 소개하였고, ‘Caritas 외침’에는

통합복지타운 ‘나래울’ 복지관을 소개하는 내용을 실었다. ‘가톨릭 사회 복지 영성 지상 중계’에는 최정목 신부의 묵상 글을 실었다. 총 84면, 3,800부를 제작하였으며, 교구 사회복지회(국)를 통하여 전국 성당과 사회복지 기관·시설과 각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 2017년 2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2월 23일(목) 춘천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김운회 주교와 위원 사제 8명이 참석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 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한국 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담당 사제 변경 건을 논의하고, 2016년 자선 주일 포스터와 2017년 사순 시기 홍보 포스터를 평가하였다.

■ 2017년도 제1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가톨릭 사회 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쉼과 영성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제1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을 3월 29일(수)-31일(금)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75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MBSR(스트레스 이완 명상: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과 마음 비추기’라는 주제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박문수 박사(의정부교구 소속 가톨릭평신도 영성연구소 소장)가 강의하였다.

■ 2017년 전국 교구 사회 복지회(국)와 복지 분야별 협의 단체 연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주관한 2017년도 전국 교구 사회복지회(국)와 복지 분야별 협의 단체 사제, 수도자, 실무자들을 위한 연수가 4월 5일(수)-7일(금) 서울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14개 교구와 6개 단체에서 97명이 참가하였다.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가 주제 강의를 하였으며, 실무 영역에 따라 법인행정, 시설, 본당, 후원회와 자원개발,

홍보, 교육 등의 6개 분과로 나누어 조별 모임을 하였다. 첫째 날은 서울 시내 시티투어를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고, 셋째 날에는 조별 모임 종합 발표와 총무 정성환 신부의 종합 강의를 있었다.

■ 2017년도 제2차, 제3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가톨릭 사회 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쉼과 영성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제2차 가톨릭 사회 복지 전국 피정을 4월 26일(수)-28일(금)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82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는 주제로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담당 사제인 김재섭 신부가 주관하였다.

제3차 전국 피정은 5월 16일(화)-18일(목) 경기도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가톨릭 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80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MBSR과 떼제 기도’라는 주제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박문수 박사(의정부교구 소속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가 강의하였다.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 2016년 제2차 대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사장 김운회 주교)은 2016년 12월 21일 제2차 대북자문위원회 회의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위원장 이종건 신부와 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와 2017년 대북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해외원조 후원회보 「희망」 제87호, 제88호 발행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해외원조 활동을 알리며 후원회원들에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보 「희망」 제87호가 2016년 12월 21일, 제88호가 2017년 3월 24일에 발행되었다. 「희망」 제87호는 총 16면, 제88호는 총 20면, 각 15,000부가 제

작되어 후원회원과 전국 본당, 사회복지시설, 교회 내 기관에 배포되었다.

■ 2016년도 사업 종합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전 세계 식량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구호 사업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중동의 분쟁 피해 구호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중장기 개발협력 사업과 대북지원 사업에 총 48억 6,155만 8,654원(미화 4,205,031.50달러)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 긴급구호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1,965,349.50달러를 지원하였다. 지난 6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시리아 국내실향민을 위하여 그리고 레바논과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위하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카리타스를 통하여 미화 32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분쟁 피해 난민들과 식량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사업에는 미화 1,00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밖에 아시아의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의 지진, 홍수, 가뭄, 태풍 피해 긴급구호 사업에 미화 438,675.50달러를 지원하였고, 중남미의 아이티와 에콰도르의 태풍과 지진 피해 긴급구호 사업에 미화 206,674달러를 지원하였다.

2016년도 개발협력 사업으로 24개 사업에 1,216,197달러를 지원하였다.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관련, 13개 사업에 639,197달러를 지원하였다. 지속 사업으로 네팔 내 부탄 난민 교육 지원, 네팔 인신매매와 불안전 이주 예방을 위한 국경지역 협력, 몽골 빈곤 지역 유아 및 초등교육 지원, 미얀마 지역사회기반 교육과 보건 자활 지원, 미얀마 난민 아동 교육 지원, 미얀마 장애인 통합 개발 지원, 방글라데시 극빈 가정 식량 사업, 방글라데시 극빈 아동 기초 교육 지원, 스리랑카 통합 지역개발, 스리랑카 극빈층 아동 초등교육 지원,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카리타스의 2개 개발협력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신규 사업으로는,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아동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 관련, 3개 사업에 12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2013년 착수된 에티오피아의 식량 안정 사업과 아동 급식소 지원 및 지역 농업 개발 사업이 2016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중동 지역 개발협력 관련, 3개 사업에 20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지속 사업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사회기반 교육과 재활 지원, 이라크 모자 보건 사업, 이라크 전쟁 피해 주민과 아동 의료 및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 관련, 5개 사업에 257,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지속사업으로 과테말라 케찰테낭고 지역 통합 개발, 볼리비아 기숙사 급식 지원, 에콰도르 HIV/AIDS 예방 지원, 에콰도르 식량 안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신규 사업으로는 아이티 영양 실조 모자 식량 사업이 추진되었다.

■ 후원기관 기부금 전달식 - 셋마루공부방,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7년 1월 12일 셋마루공부방, 2월 18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무국을 방문하였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지구촌 기아퇴치 캠페인에 참여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손수 후원금을 마련한 학생들은 이날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이에 사무국은 방문 학생들에게 지구촌 곳곳의 빈곤 상황을 설명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무국장 추성훈 신부 부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6년 11월



23일 정기이사회에서 대구대교구 추성훈(바오로) 신부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임기는 3년이다. 추 사무국장은 2017년 1월 25일 부임하였다. 추성훈 신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미국 클리블랜드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수학하고, 사제 수품을 받았다. 교구장 비서, 홍콩 교포 사목 신부, 초전본당 주임신부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가톨릭교회의 해외원조와 대북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구이다.

■ 2017년도 해외원조주일 실시

신자들에게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의 상황과 나눔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외원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제정한 해외원조주일이



2017년 1월 마지막 주일인 1월 29일에 전국 각 본당에서 실시되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운회 주교는 “우리 공동의 집과 한 가족인 인류를 보호합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일상적인 연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해외원조주일 포스터 3,770부와 담화가 실린 강론 자료 2,920부를 제작하고, 각 교구 사회복지회(국) 등을 통해 전국 본당 및 사회복지 시설·기관, 해외 신자 공동체 및 기타 단체에 배포하였으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해외원조주일을 알리고 참여를 촉구하는 동영상 자료를 유포하였다.

■ 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2월 3일(금)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성훈 신부 외 7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7년도 사업 계획안 및 사업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도 1차 해외원조 사업을 심의하여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 2017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2017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2월 10일(금) 오후 4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이사장 김운회 주교와 이사 유흥식 주교, 정신철 주교, 유경춘 주교,

홍부희 신부, 신인미 수녀, 윤희한 변호사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6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 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 승인,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 감사 보고, 2017년도 1차 해외원조 사업 지원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2017년 제1차 해외원조 실시

제1차 정기이사회 승인에 따라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4개(아프리카 지역 2개, 중남미 1개, 유럽 1개) 사업에 미화 200,000달러를 지원하였다.

■ 시리아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 캠페인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시리아 내전이 7년째 접어 들어가는 3월에 국제 카리타스에서 진행하는 '시리아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공동

행동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 2017년도 제2차 해외원조 실시

4월 19일 제2차 해외원조 심의 회의에서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12개 사업을 심의하고, 이사회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개 사업에 미화 538,1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분쟁 피해 긴급구호	30,000달러
수단 다르푸르 긴급구호	78,100달러
마다가스카르 식량 위기 긴급구호	20,000달러
몽골 흑한 피해 긴급구호	10,000달러
요르단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50,000달러
부룬디 식량 위기 긴급구호	50,000달러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긴급구호	50,000달러
소말리아 가뭄 피해 긴급구호	50,000달러
시리아 분쟁 피해 긴급구호	100,000달러
남수단 분쟁 피해 긴급구호	100,000달러



허훈,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이담, 2014.

올해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 피정을 두 차례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큰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그들의 처지가 애처로웠던 터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제의 책을 찾아보려 노력하였다.

마침 필자가 이년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이 책이 생각났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심신의학에 속한다. 심신의학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보고 특히 몸을 통해 마음을 읽으려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이다. 마음 또는 의식부터 시작하면 다들 어렵다고 할 것 같아 아예 몸에서 출발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무의식은 항상 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자주 체험한다. 예를 들어, 긴장할 때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데 맥박이 빨라지고 이마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 마음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얼굴의 약한 부위에 꽃이 피는 경우도 있다. 화가 나면 피부가 단단해진다. 이외에도 마음이 아프면 몸에 어딘가가 특히 소화기관에 고장이 잘 난다. 이 책을 보는 이유는 몸을 관찰하는 데 있지 않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다스려 심신의 건강을 찾는 데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몸에 대한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이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해야 한다. 결국, 몸을 단련해 마음의 건강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천천히 익히도록 하고, 우선은 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란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추천자: 박문수(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주

소

록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41 · 팩스 460-7629 · E-mail caritascor@daum.net · http://caritas.cbck.or.kr

●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39 · 팩스 460-7617 · E-mail caritas@cbck.or.kr · http://www.caritas.or.kr

● **교구 사회복지회(국)**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번지 (61244)
전화 062)510-2882 · 팩스 510-2889 · E-mail gjcaritas@daum.net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별관 (41969)
전화 053)253-9991 · 팩스 253-3888 · E-mail dgcaritas@dgcaritas.or.kr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가톨릭사회복지회관 (34438)
전화 042)635-5111 · 팩스 625-6111 · E-mail caritastj@catholic.or.kr

마산교구 사회복지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교구청 내 (51727)
전화 055)249-7041~2 · 팩스 249-7044 · E-mail bokji2@cathms.or.kr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37. 로사리오 카리타스 (46267)
전화 051)516-0815 · 팩스 516-0816 · E-mail caritasbs@daum.net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76-1314 · 팩스 754-5636 · E-mail caritasseoul@daum.net

수원가톨릭사회복지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2층 (14001)
전화 031)441-5833 · 팩스 441-5834 · E-mail cssw@casuwon.or.kr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경북 영주시 봉화로 2, 2층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36065)
전화 054)633-6761~2 · 팩스 633-6940 · E-mail caritasandong@daum.net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도 원주시 개륜 1길 65 (26331)
전화 033)731-4557~8 · 팩스 731-4559 · E-mail wjcaritas@catholic.or.kr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11674)
전화 031)850-1481~3 · 팩스 873-4482 · E-mail caritasdaegun@daum.net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3 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202호 (22321)
전화 032)765-6966 · 팩스 762-9193 · E-mail bokji6966@naver.com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교구청 2층 (55036)
전화 063)230-1073~5 · 팩스 284-4855 · E-mail sarangdari@daum.net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특별자치도 관덕로 8길 14 제주교구청 내 (63168)
전화 064)729-9511 · 팩스 729-9518 · E-mail caritasjeju@naver.com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내 (28337)
전화 043)210-1714 · 팩스 210-1797 · E-mail caritas-cj@daum.net

춘천교구 사회복지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54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관 (24355)
전화 033)243-4545 · 팩스 243-4546 · E-mail cccaritas@daum.net

● 복지분야별 전국협의단체

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9-6 작은형제회 102호 (02837)
전화 02)762-8155 · 팩스 763-8050 · E-mail mari9180@hanmail.net

가톨릭나사사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양화로8길 25-8 정보빌라트 402호 (04044)
전화 02)3144-6311 · 팩스 3144-6312 · E-mail clwak@catholic.or.kr

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42 (23039)
전화 032)933-9960 · E-mail badastar10@naver.com

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29 (01078)
전화 02)995-7394 · 팩스 903-5119 · E-mail appffaa@daum.net

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61 (26415)
E-mail zzounnal@hanmail.net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1335호 (06336)
전화 02)451-0333~4 · 팩스 459-3869 · E-mail webmaster@blindmission.or.kr

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 E-mail hangajang1@hanmail.net

마을과아이들(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서울 중구 난계로 11길 30, 104동 504호 (황학동코아루)(04575)
전화 02)773-0102 · 팩스 6353-1709 · E-mail ecaritasorg@hanmail.net

가톨릭레드리본 ·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53-2037~8 · 팩스 333-4938 · E-mail redribbon@catholic.or.kr

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들꽃마을 (40153)
전화 054)956-9800 · E-mail ca21116@hanmail.net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이들을 보듬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이들과 어울려 참 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전국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교회의 구호, 복지, 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격려하며 정책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한 인적, 기술적,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는 교회 복지활동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도와 특성을 살린 교회 복지 전달체계와 정책을 개발하고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문

정성환(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최정묵(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
현경훈(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유충희(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김종민(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박문수(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유영준(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진희(인천교구 사회복지회)
정진모(비영리컨설팅 웰핍 대표)

가톨릭사회복지

펴낸이 : 김윤희

역은이 : 정성환

편 집 : 서창원

편 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전화 02)460-7641 / 팩스 02)460-7629

<http://caritas.cbck.or.kr> / caritascor@daum.net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제 작 : (주)더셀 02)2264-9293